

1970년부터 1999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MMCA) 전시유형 변화 연구 -국내 작가 전시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s in the Types of Exhibitions Held at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1970 to 1999 -Focusing on Exhibitions of Domestic Artists-

연구식¹

Kusuk Yun¹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MMCA 해외 교류전을 제외한 국내 작가 전시유형을 조사하여 미술관을 중심으로 한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밝히는 데 있다. 연구 결과 70년대는 수상작가전, 단체회원전, 근현대 원로·작고작가 및 서양 모더니즘 전시가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유형의 미술 전시는 대부분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 미술장르와 근대, 현대와 같은 시대를 통해 구분되는 특징을 드러낸다. 80년대에는 70년대 유형의 전시가 더욱 발전하지만,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디아스포라의 이슈를 생산하는 작가들의 창작 역시 전시를 통해 소개되었다. 또한, 젊은 예술인들의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과거 대학생 전시와는 차별화를 나타낸다. 90년대에는 70년대부터 발전한 「국전」이 더욱 발달했지만, 단체회원전이 사라지고 미술관 자체 기획력이 돋보이는 전시들이 발전하였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발전한 젊은 작가들에 대한 전시가 이어짐은 물론, 사실주의나 민중미술을 수용함과 동시에 소장품 전시도 늘어난다. 이처럼 MMCA 전시를 통해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을 살피는 일은 미술의 역사를 제도권 관점에서 고찰한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핵심어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유형, 한국 근현대미술, 미술장르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domestic artist exhibitions held at the MMCA, excluding overseas exchange exhibitions, from 1970 to 1999, in order to clarify the way in which Korean contemporary art, as it appeared in art museums, progressed over this time period.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n the 1970s the exhibitions held at the museum mainly fell into one of four categories: "award-winning artists", "members of art associations", "senior and deceased artists", and "artists of Western modernism". These exhibitions presented art from genres such as Western painting, Eastern painting, and sculpture, and eras such as the modern and contemporary. In the 1980s, the types of trends seen in the 1970s were further developed. However, new types of art, such as video art, installation art, and the

¹ Department of Fine Arts, Kyonggi University, Suwon, Korea [Lecturer]
e-mail: yonkusuk@hanmail.net

Received(July 10, 2023), Review Result(1st: July 27, 2023), Accepted(September 8, 2023), Published(September 30, 2023)



© 2023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diaspora art of young artists, were also exhibited. In addition to this, exhibitions of the work of young artists, organized regularly in this period, differ from past student exhibitions. In the 1990s, the Grand Art Exhibition, which had been evolving since the 1970s, was further developed, but exhibitions of art association members disappeared as thematic ones grew. Additionally, the development of exhibitions of young artists, marked since the 1980s, continued, while realism and Minjung Art represented a change in the artistic trends of the period. Acquisition exhibitions also developed markedly, and the types of exhibitions held at the museum became more diverse in the 1990s. In this way, looking at the flow of Korean contemporary art through the MMCA's exhibitions entails considering the history of ar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

Keyword : MMCA, Type of Exhibition,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art genre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의의

봉건사회에서 만들어진 건축, 회화, 조각과 같은 예술을 대표하는 장르의 작품들은 왕이나 귀족 또는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며 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예술품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칭하는 ‘뮤지엄’이라는 장소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혁명의 성과를 세상에 알리고 과거의 모습을 학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1][2]. 따라서 뮤지엄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작품을 보관, 보존, 수복, 공개하는 일에 중점을 둔다. 여기서 ‘공개하는 행위’는 미술전시를 말한다. 어떤 뮤지엄이 아무리 좋은 소장품을 확보하였다고 해도 전시 행위를 통해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본질적 가치는 훼손된다. 따라서 미술전시를 연구하는 일은 뮤지엄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탐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1969년 개관하여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이자 국내에서 가장 높은 파급력을 자랑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하 MMCA) 전시를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MMCA는 1969년 개관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5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전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시대 및 전시유형을 적절하게 선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1970년부터 1999년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미술관 전시 역사를 초기부터 중기까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MMCA의 전시를 체계적으로 살피기 위해 30년 미술전시 역사를 1970년-1979년 1기, 1980년-1989년 2기, 1990년-1999년 3기로 나눌 것이다. 또한, MMCA에서 개최되는 해외작가 및 미술관 초대전시, 국내 작가를 해외에 소개하는 전시, 국내작가와 해외작가를 동시에 소개는 유형의 혼합전과 같이 해외 교류와 연관된 전시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그 이유는 MMCA의 국제 교류와 관련된 모든 활동은 국내와 해외라는 복합적 구도를 형성하며 발전

하기에 해당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작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MMCA 전시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MMCA 전시 연구를 위해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전시’ 카테고리의 정보를 고유의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종 수상 및 대규모 형식의 미술전시를 ‘수상작가전’, 각종 미술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단체회원전’, 작가 1인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인전’, 그 이상을 소개하는 전시로 앞서 언급한 여러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단체전’, 대학생들의 미술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학생전’,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소장품전’, 정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되는 전시를 ‘정책전’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학생전, 소장품전, 정책전은 MMCA 전시유형에서 각각 6%, 4%, 2%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해당 전시유형의 값은 MMCA 전시 전체 분석(표1)에 포함하지만, 별도의 심층적 분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학생전의 경우 대학교 재학생을 위주로 개최된 미술전시로 30년간 총 23건(6%)으로 조사되었으며, 1기 16건, 2기 7건으로 나타나 해당 유형의 전시가 70-80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소장품전의 경우 30년간 총 16건이 조사되었는데 1기 1건, 2기 3건, 3기 12건으로 시간에 따라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전의 경우 「새마을 미술전」(1972), 「민족 기록화 전시회(경제편)」(1974), 「전두환 대통령 아프리카·캐나다 순방 선물 및 사진전시회」(1982)와 같은 전시로 모두 체재나 정치 선전의 경향이 강조된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1기 5개(3%)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2기에는 1건(1%)을 기록하였고, 3기에는 이러한 유형의 전시가 사라졌음을 밝히고자 한다.

1.3 연구방법 및 한계

앞서 언급한 전시유형 분류에 있어 소장품전, 정책전, 학생전, 개인전, 수상작가전, 단체전, 단체 회원전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어떤 전시가 두 개 이상의 성격을 드러낼 때 그것을 상위개념의 전시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MMCA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전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술 관련 각종 문헌, 보고서, 연감은 물론, 시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MMCA와 관련된 각종 출판물, 전시도록, 리플릿,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30년의 MMCA 전시 역사를 거시적 관점에서 살피는 일은 개별 전시에 관한 세부적 분석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2. 현행 연구 조사

시대론적 관점에서 MMCA 전시를 분석한 최근 사례를 살펴보자. 먼저, 2011년에는 2000년대 새롭게 등장하는 블록버스터형 미술전시에 대한 연구가 MMCA 덕수궁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3]. 2022년에는 미술관 다양성 증진에 대한 논의를 위해 MMCA에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년간 진행된 개인전 140건과 신소장품 내역 840건

을 분석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4]. 다음으로 1971년부터 2020년까지 MMCA 소장품에 대한 개괄적 파노라마를 제공하는 연구가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다 [5]. 이처럼 기존 연구가 몇몇 특정 유형의 전시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MMCA 전시를 종합적, 연대기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일은 미술전시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의미한다.

3. 본론

3.1 1970년부터 1999년까지 MMCA 전시유형 변화

[표 1] 1970-1999 MMCA 전시유형을 정리한 결과

[Table 1] The types of exhibitions held at the MMCA from 1991 to 2010

구분	시기						총 (수량/%)	
	1기		2기		3기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32	21%	35	29%	43	38%	110	29%
단체회원전	74	50%	10	8%	3	3%	87	23%
단체전	13	9%	32	27%	34	30%	79	21%
개인전	8	5%	31	26%	20	18%	59	16%
학생전	16	11%	7	6%	0	0%	23	6%
소장품전	1	1%	3	3%	12	11%	16	4%
정책전	5	3%	1	1%	0	0%	6	2%
합계	149	39%	119	31%	112	29%	380	100

[표 1]은 1970년부터 1999년까지 7개 유형의 전시를 모두 합한 결과로 해당 기간 총 380건의 전시가 조사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 149건(39%), 2기 119건(31%), 3기 112건(29%)으로 MMCA의 전시가 양적 측면에 있어 1기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유형은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110건(29%), 단체회원전 87건(23%), 단체전 79건(21%), 개인전 59건(16%), 학생전 23건(6%), 소장품전 16건(4%), 정책전 6건(2%)으로 양적 빈도에 따라 정리될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에는 단체회원전이 74건으로 전체에서 무려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수상작가전이 32건(21%)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전이 16건으로 전체 1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체전 13건(9%), 개인전 8건(5%), 정책전 5건(3%), 그리고 소장품전이 1건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1기 전시유형에서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그리고 회원전과 같이 미술관 자체 기획보다는 외부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행사가 두드러진다. 2기에는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이 35건(29%), 단체전이 32건(27%), 개인전이 31건(26%)으로 나타나 단체전과 개인전이 1기에 비해 뚜렷하게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1기에 주류를 이루었던 단체회원전은 총 10건으로 1기에 비해 무려

42포인트 하락하였다. 이와 더불어 1기에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학생전이 7건(6%)으로 1기에 비해 5포인트 하락하였다.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의 경우 35건으로 전체 29%로 나타나 1기와 유사하다. 그 뒤를 이어 소장품전이 3건(3%)을 기록했으며, 정책전이 1건(1%)으로 나타났다.

3기에는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이 43건(38%)으로 70년대 이후 이러한 전시유형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단체전이 34건(30%)으로 2기와 유사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개인전의 경우 20건(18%)으로 조사되어 2기보다 8포인트 감소하였다. 소장품전의 경우 12건(11%)을 기록하여 2기보다 양적으로 강조된다. 다음으로 단체회원전이 3건으로 70년대 이후 뚜렷한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정책전과 학생전이 해당 시기에 개최되지 않아 MMCA 전시유형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전시유형별 세부적 변화를 살펴보자.

3.2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표 2] 1970-1999 MMCA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유형을 정리한 결과

[Table 2] The types of exhibitions held at the MMCA from 1970 to 1999, including award-winning artist and Grand Art exhibitions

구분	시기			총
	1기	2기	3기	
국전	10	22	37	69
동아미술제	1	5	6	12
상공미전	9	0	0	9
중앙미술대전	2	5	0	7
한국미술대상전	5	1	0	6
한국현대미술대전	5	0	0	5
기타 미술대전	0	2	0	2
합계	32	35	43	110

[표 2]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MMCA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 유형을 정리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년간 MMCA가 개최한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은 모두 110건으로 전시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를 종류에 따라 ‘국전’, ‘동아미술제’, ‘상공미전’, ‘중앙미술대전’, ‘한국미술대상전’, ‘한국현대미술대전’, ‘기타 미술대전’으로 분류하였다. ‘국전’의 경우 1949년 처음 개최된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이르는 말이다. 이 전시는 1969년 MMCA 개관 이후 구상, 비구상 그리고 동양화, 서양화, 조각 등 미술장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관학풍’ 미술 육성이라는 비판에 따라 1980년 민간단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리고 다음 해에는 사단법인 미술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이라는 명칭의 전시로 그 전

통을 이어받았다. 이러한 장르 중심의 제도권 미술은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 건축 및 사진전람회」와 같은 전시와 유사하여 본 논문에서 모두 「국전」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1978년 동아일보가 마련한 「동아미술제」가 개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중앙일보사가 개최한 「중앙미술대전」은 「동아미술제」와 함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미술전시로 「국전」 폐지 이후 순수미술 분야에서 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 「한국미술대상전」은 한국일보 창간 15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1970년부터 개최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모두 회화, 조각, 서양화, 판화 등으로 구분되어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여 수상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한국현대미술대전」의 경우 1974년 MMCA가 개최하여 해를 바꾸어 조각, 공예, 동양화, 서양화 전시를 소개하였고, 1978년 전시에는 서예, 건축, 사진과 같은 미술장르로 확대하였다. 기타미술대전은 「대상수상작가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대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1972년 발족한 「서울현대미술제」, 그리고 대규모로 소개된 「한국판화드로잉대전」, 「서울미술대전」, 「현대미술초대전」은 물론, 서울관 건축설계 아이디어 공모 출품작 전시와 같은 유형의 공모전을 포함한다.

앞서 구분한 여러 유형의 전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기에 「국전」이 10건으로 가장 높아 MMCA의 전시 운영이 제도권의 권위를 바탕으로 한 공모전 중심으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전」과 유사한 「상공미전」이 9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미술대상전」, 「한국현대미술대전」이 각각 5건을 기록한다. 그리고 「중앙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가 각각 2건과 1건을 기록하여 70년대 민간 주도의 수상전이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기의 경우 1기에서 다각화된 공모전들이 「국전」 경향의 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해당 유형의 전시는 모두 22건으로 1기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당시 국전 유형의 전시 발달의 원인은 해당 전시가 「대한민국미술대전」을 비롯한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건축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를 포함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전시가 매년 미술장르를 달리하며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9년 한 해만 보았을 때 「대한민국공예대전」, 「대한민국서예대전」, 「대한민국미술대전」이 같은 해에 개최되어 해당 유형의 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반복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앙미술대전」과 「동아미술제」가 각각 5건을 기록하며 1기에 비해 뚜렷한 발전 양상을 보인다. 반면, 1기 전시 경향을 주도했던 「상공미전」과 「한국현대미술대전」이 사라졌으며, 「한국미술대상전」도 1건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3기의 경우 「중앙미술대전」과 「한국미술대상전」 등 여러 형태의 수상전이 사라지고, 2기와 유사하게 대규모로 개최된 여러 미술장르의 전시를 뜻하는 「국전」이 37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전은 90년대 초 1, 2기에 발달한 회화, 조각, 공예, 서예라는 구도에서 판화, 한글, 한문, 사군자, 전각, 문인화 등을 포함하여 미술장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994년부터 「대한민국미술대

전」은 서예와 공예를 별도의 전시로 소개하는 동시에 순수미술의 경우 1부 비구상계열, 2부 구상계열로 나뉘어 8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한다. 「동아미술제」의 경우 3기에 총 6회 개최되어 90년대 공모전 형식에 있어 ‘국전’과 ‘동아미술제’라는 양대 축의 형성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연구 기간인 30년간 대규모 미술대전이나 수상작가전의 비중이 MMCA 전시에 있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심사를 통한 ‘최고의 미술가’ 선발이 70-90년대 해당 기관의 전시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알 수 있다.

3.3 단체회원전

[표 3] 1970-1999 MMCA 단체회원전 유형을 정리한 결과

[Table 3] The types of art association exhibitions held at the MMCA from 1970 to 1999

전시유형	시기			총
	1기	2기	3기	
양데빵당전	7	6	3	16
백양회전	14 (회원전: 8, 공모전: 6)	0	0	14
목우회전	10	2	0	12
한국미술협회전	7	2	0	9
구상전	5	0	0	5
한국여류조각가전	5	0	0	5
창작미술가협회전	4	0	0	4
현대공간회 조각전	4	0	0	4
한국여류화가전	3	0	0	3
한국현대조각회전	1	0	0	1
한국현대미술연합전	2	0	0	2
낙우회전	2	0	0	2
창조회전	2	0	0	2
한국신미술회전	2	0	0	2
연립전	2	0	0	2
전국회원전	2	0	0	2
한국아방가르드협회 AG전	1	0	0	1
에콜 드 서울전	1	0	0	1
합계	74	10	3	87

[표 3]은 1970-1999 MMCA 단체회원전 유형을 정리한 결과이다. 해당 유형의 전시에서 「양데빵당전」이 1기 7건, 2기 6건, 3기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72년에 처음 개최되어 1992년 MMCA에서 막을 내린 이 전시는 작가 이우환이 기획하여 이동엽, 허황, 심문섭, 이건용과

같은 모노하나 미니멀리즘 계열의 작가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1957년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동양화 미술 단체인 백양회가 1기에 회원전 8회, 공모전 6회를 개최하여 「앙데팡당전」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1958년 설립된 구상미술 계열의 목우회가 1964년 두 번째 단체전을 개최한 이후, 공모전 형식으로 1987년까지 총 12회의 전시를 개최하여 앞서 살펴본 백양회와 함께 서양화와 동양화로 대변되는 한국 미술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전」의 경우 1기 7건, 2기 2건으로 나뉘어 앞서 살펴본 다른 유형의 전시와 유사하게 1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전시의 특징은 미술창작에 있어 「앙데팡당전」, 「백양회전」, 「목우회전」과는 다르게 뚜렷한 예술 방향을 형성하기보다는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967년 창립되어 1999년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사단법인 「구상전」이 ‘새로운 구상’을 내걸며 1973년부터 1977년까지 총 5회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4년 창설되어 MMCA에서 1회 회원전을 개최한 「한국여류조각가회전」이 1978년 제5회까지 총 5건 개최되었다. 여기에 1기에 3건을 기록한 「한국여류화가전」을 포함하면, 여성미술전시가 모두 8건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1957년 창설된 중견 서양화가 단체인 「창작미술가협회 회원전」이 1973년 MMCA에서 개최되었다. 1976년 MMCA의 4번째 전시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되어 전시 성격에 있어 앞서 살펴본 백양회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모더니즘 조각을 선보인 현대공간회 역시 1974년 MMCA에서 첫 전시를 선보인 이래로 1978년까지 4건의 회원전을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현대미술연합전」, 「낙우회전」, 「창조회전」, 「한국신미술회전」, 「연립전」, 「전국회원전」, 「한국아방가르드협회 AG전」, 「에콜 드 서울전」이 1기에만 1-2건을 기록하여 70년대 MMCA의 전시가 민간 미술 단체를 중심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3.4 단체전

[표 4] 1970-1999 MMCA 단체전 유형을 정리한 결과

[Table 4] The types of group exhibitions held at the MMCA from 1970 to 1999

구분	시기			총
	1기	2기	3기	
미술장르형	6	6	14	26
시대구분형	2	11	5	18
청년작가전	0	5	5	10
주제기획전	0	0	8	8
소수단체전	2	2	1	5
이달의 작가전	0	3	0	3
기념전	1	1	0	2
기타	2	4	1	7
합계	13	32	34	79

1인 이상의 작가가 참여한 미술전시를 단체전이라 한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를 효과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표 4]를 통해 1기부터 3기까지 MMCA에서 개최된 해당 유형의 전시를 성격별로 분류 하였다. 먼저, 서양화, 동양화, 조각과 같은 미술장르로 구분하여 소개하는 전시를 ‘미술장르형’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근현대 등 시대로 구분된 전시를 ‘시대구분형’, MMCA에서 한 해 주목할 만한 여러 젊은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청년작가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를 ‘주제기획전’, 2-3인전과 같은 전시를 ‘소수단체전’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여러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를 ‘이달의 작가전’, 국가적 행사와 연관되어 개최되는 전시를 ‘기념전’, 앞서 소개한 7개 전시와는 다른 유형의 단체전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미술장르와 시대를 동시에 드러내는 전시의 경우 미술장르형이 상위 전시로 분류되었다.

언급된 전시유형의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미술장르형이 1기와 2기에 각각 6건을 기록하였으며, 3기에는 14개로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몇몇 전시를 살펴보면, 1기에 「오늘의 한국 특별사진전」(1977), 「한국현대미술 - 1950년대 서양화전」(1979)과 같이 서양화, 동양화, 도예, 사진, 평면 등 미술장르가 강조되는 전시들이 비중 있게 소개되었다. 여기서 「한국현대미술」 전시의 경우 ‘현대미술’이라는 시대를 드러내어 ‘시대구분형’ 전시와 교차하면서도 특정 미술장르를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기와 마찬가지로 2기 역시 「한국현대미술-1950년대 동양화전」(1980), 「드로잉 ‘81전」(1981), 「한국현대사진대표작전」(1983), 「87 현대의상전」(1987, 1988), 「한국현대수묵화전」(1981), 「서양화가 눈으로 본 한국의 자연전」(1981)과 같이 미술장르 중심의 전시가 이어지고, 다른 12건의 전시가 특별한 주제보다는 ‘현대미술’ 또는 ‘한국현대미술’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어 1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하지만, 미술 시대구분에 있어 ‘근대’, ‘현대’, ‘동시대’의 구분이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시대적 모호성을 드러낸다 [6]. 3기의 경우 「한국현대판화 40년전」(1993), 「한국현대도예 30년전」(1994), 「한국전통산수화전」(1995)과 같이 ‘양화’, ‘조각’, ‘서예’, ‘공예’, ‘유화’, ‘수묵화’, ‘채색화’, ‘건축’, ‘판화’, ‘초상화’와 같은 다양한 미술장르가 소개되어 70-80년대 전시유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90년대 국내 미술계가 서구권에서 유입된 ‘포스트모던 문화의 수용’이라는 화두에 직면한 것을 고려하면, 70년대 이후 MMCA 전시유형 패턴의 고착화는 해당 기관의 보수적 성격을 드러낸다.

시대구분형의 경우 1기 2건, 2기 11건, 3기 5건으로 나타나 80년대 미술 경향을 대표한다. 몇몇 전시를 살펴보면, 「한국근대미술 60년전」(1972),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전」(1978), 「한국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흑과 백전」(1987), 「한국현대미술 50년전」(1995), 「다시 찾은 근대미술 덕수궁」(1999)과 같은 전시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1991년에 개최된 「현대미술초대전」의 경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적 특징을 암시하면서도 한국화, 서예, 공예와 같은 미술장르를 소개하여 앞서 살펴본 미술장르형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정례전 형식으로 개최된 「청년작가전」은 2기 5개, 3기 5개로 조사되었다. 1987년 전시를 살펴

보면, 강상중, 노상균, 문봉선, 오상길, 오원배, 이강희 등 현재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이 해당 전시를 통해 소개되어 미술계에서 이 전시가 젊은이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전시는 1990년부터 「젊은 모색」이라는 타이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연령대를 과거 35세에서 39세 미만으로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MMCA가 젊은 작가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수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기획전의 경우 3기에만 8건이 개최되어 90년대 당시 MMCA 전시 개최 역량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시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미술장르를 불문하고 예술작품의 수준을 여러 키워드를 통해 선보이는 「한국미술 '95: 질·량·감」(1995), 현대사회와 인간에 대한 고찰을 드러내는 「한국미술 97: 인간·동물·기계」(1997), 한국 구상미술의 특징과 경향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하는 「한국미술 99 - 인간, 자연, 사물」(1999-2000)이라는 전시가 눈에 띈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모두 국내 생존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여러 개의 테마로 소개했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또한, 1999년 개최된 「아트 & 아트웨어 - 옷, 그 겉과 안」이라는 전시는 일상적인 의복을 예술로 살펴본다는 취지 아래 개최되어 한국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994년에는 무려 246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민중미술 15년: 1980-1994」라는 전시가 기획되어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MMCA 전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말해주고 있다. 또한, 신미년을 맞아 1991년 「신미년 양그림 특별전」이 개최되는가 하면, 「오늘로 걸어 나온 사람들전」(1999)과 같은 현재성을 중요시한 전시가 소개되었다. 이 밖에도 문익점을 기리고자 「목화」를 키워드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을 소개하는 「목화의 예술적 변용」(1991) 역시 주목할 만하다.

소수단체전의 경우 2기와 3기 각각 2건, 3기에는 1건만 나타났다. 대표적인 전시로는 1974년 개최된 「원로작가 초대전」과 1975년 개최된 「7·5인회전」을 들 수 있다. MMCA 전시 전체에서 이러한 유형의 전시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은 MMCA가 전시구성에 있어 대규모 단체전이나 앞으로 살펴볼 개인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달의 작가전」의 경우 1987년 1회, 1988년 2회 개최되어 우제길, 양주혜, 노정란, 이강자 등 80년대 당시 30, 40대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우제길은 ‘광주’라는 지역적 성격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머지 작가들은 국내에서 공부한 후 프랑스와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여 과거 국내 작가들의 일본 중심 해외 유학 구도와 차이를 나타낸다. 1982년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55명의 창작인을 소개하는 「재외 작가 초대전」이 개최되어 MMCA가 국내 작가를 중심으로 국제미술 무대와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에는 송병돈(1984), 박상옥(1984), 박수근(1984), 장우성(1985), 유경채(1985), 임세택(1989), 강명희(1989)와 같은 원로작가나 민중미술과 사실주의 화풍의 작가들을 2·3인전 형식으로 소개하는 전시들도 개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80년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MMCA가 민중미술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전시 역시 수용하여 당시 미술계의 흐름을 반영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기념전의 경우 1971년 개최된 「3·1절 기념 한국 판화 종합 대전람회」와 「광복 40주년 기념 현대미술 40년전」으로 총 2건으로 나타났다. 적은 수치이지만, 해당 유형의 전시를 통해 우리는 MMCA가 국내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 국가적 관심사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개인전

개인전의 경우 1기 8건(5%), 2기 32건(18%), 3기 20건(11%)으로 총 59회가 개최되어 2기에 해당 전시유형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1기에 김환기(1975), 이성자(1978), 유영국(1979), 김홍수(1979), 박성환(1979)과 같은 원로작가와 유창환(1976), 박래현(1978)과 같은 작고 작가들의 전시가 이어져, 주로 고령층 작가에 대한 편향성이 나타난다. 이들은 대부분 야수파, 큐비즘, 추상미술과 같은 서구 모더니즘 예술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중 상당수가 일본에서 유학하였다. 그리고 이성자, 김홍수와 같은 작가들은 각각 일본과 프랑스에서 유학 또는 체류한 경험이 있다. 1977년에는 재미 여류화가 박순(1909)의 전시가 개최되어 추상미술 경향의 작품을 소개하였다. 결과적으로 70년대 MMCA 개인전의 경우 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특정 국가에서 창작 활동 경험이 있는 작가들의 활동이 뚜렷하다.

2기에는 1기와 유사하게 김종영(1980), 김홍수(1980), 김기창(1980) 등 수 많은 원로작가와 최영림(1987), 이림(1987), 원계홍(1989)과 같은 작고 작가들의 회고전이 다수 개최되었다. 이들 역시 1기와 유사하게 대부분 일본에서 유학하였으며 주로 추상화, 인상주의, 표현주의, 큐비즘의 영향을 받아 당시 MMCA 전시가 모더니즘에 치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임응식, 김홍수, 남관, 이성자와 같이 프랑스에서 유학한 작가들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1980년대 말에는 「이달의 작가」라는 타이틀로 신성희(1988), 정연희(1988), 신문용(1989), 전수천(1989)과 같은 40대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꾸준히 소개되었다. 이 중 전수천은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한 후 설치미술을 선보이며 모더니즘 세대와는 다른 예술 경향을 선보였다. 또한, 당시 30세의 최선명, 34세의 임영균의 개인전 역시 개최되었는데 이 젊은 작가들은 모두 한국과 미국에서 공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1988년에는 세계적인 비디오 작가인 백남준의 전시 「다다익선」이 소개되어 그동안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으로 구분된 국내 미술계에 ‘비디오아트’와 ‘국제미술 무대’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이처럼 2기 개인전 유형에는 모더니즘 회화의 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형 언어를 선보이는 젊은 작가들이 소개되어 2기의 개방적 특징을 드러낸다.

3기의 경우 1기, 2기와 마찬가지로 ‘원로작가’, ‘작고작가’라는 두 개의 큰 전시 흐름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눈에 띈다. 김홍수(1990), 박서보(1991), 김기승(1992), 김창열(1993), 곽훈(1993), 손동진(1993), 이우환(1994), 이준(1994)과 같이 일본과 프랑스에서 유학한 작가들은 물론, 신순남(1997)과 같이 국내 미술계에 ‘디아스포라’와 ‘유목민족’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작가 역시 소개되었다. 작고 작가로는 남관(1991)과 이상욱(1992)의 전시만이 개최되어 2

기보다 유작전의 수가 뚜렷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3기에는 2기에 시작된 「이달의 작가」 전시가 없어지고, 1995년부터 「올해의 작가」 전시가 개최되었다. 초대작가로는 1989년 「이달의 작가」였던 전수천이 선정되었으며, 뒤를 이어 설치미술 작가 윤정섭(1996), 산수화를 새롭게 해석하는 황인기(1997), 한지를 이용해 현대적 작품을 소개하는 권영우(1998), 사실적 화풍의 전통 회화를 선보이는 김호석(1999)의 개인전이 개최되어 새로운 유형의 현대미술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작가들이 눈에 띈다. 여기에 건축가 김수근(1990),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1992), 디자이너 민철홍(1994)의 전시가 개최되어 한정적이지만, 미술장르의 다원화 현상 역시 나타난다.

4. 결론

1970년부터 1999년까지 MMCA 전시유형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미술관의 전문적 역량을 통한 전시기획보다는 단체회원전과 수상작가전 및 미술대전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전시 흐름에서 70년대 대학생들의 전시가 비중 있게 개최됨은 물론, 정치적 성향이 강조되는 전시들이 발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유형의 전시는 서양화, 동양화, 조각, 판화 등 미술장르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MMCA 미술전시에 있어 미술전통이나 서구 모더니즘의 강한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다. 미술장르에 대한 중요성은 단체전에서도 나타난다. 해당 유형 전시를 통해 미술장르가 근대나 현대와 같은 미술시대 구분과 조합하여 MMCA가 전시의 미학적 측면보다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획일적 분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90년대 미술장르보다는 전시기획자의 기획 의도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주제기획전이 발전하여 MMCA가 큐레이터를 중심으로 당시 변화하는 미술계의 흐름을 수용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작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이나 프랑스에서 유학 또는 체류 경험이 있는 원로작가나 작고작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기초에서 70년대 이후 청년작가들의 미술전시 역시 꾸준히 소개되었다. 하지만, 70, 80년대 대학생들의 미술전시 역시 소개되어 해당 기관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있다. MMCA의 새로운 미술 경향에 대한 수용은 80년대 원로, 작고 작가들의 예술 경향에서도 비교적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발전하였다. 90년대에는 이러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사실주의 화풍과 민중미술 등이 수용되었다. 그리고 90년대 젊은 작가들을 소개하는 정례전 「젊은모색」의 연령대가 과거 「청년작가전」과 비교하여 높아져 해당 기관이 좀 더 완숙한 형태의 작품을 소개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80년대에 MMCA가 비디오아트, 설치미술, 개념미술, 디아스포라 문화 등을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국제적 경험을 쌓은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통해 수용했다는 사실 역시 시대적 변화의 유연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90년대에는 작품의 매입과 기증을 통해 확보된 MMCA의 소장품 전시가 뚜렷하게 발전하여 전시유형의 다변화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MMCA 미술전시는 70년대 수상 시스템, 미술대학생, 미술 단체, 원로작가, 작고작가, 미술장르에 대한 뚜렷한 인식에서 80년대에는 70년대 전시유형을 계승하면서도 미술장르의 다변화와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작 문화 수용’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그리고 90년대 역시 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수상작가전이나 작고·원로 작가에 대한 지속적 관심 속에서 자체 전시기획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1986년 과천관 개관을 기점으로 국내 기관 중심의 현대미술전시 역사를 계산하면 2023년 기준으로 총 37년이다. 이러한 짧은 역사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MMCA는 보수성을 고수하면서도 미래 비전의 미술 경향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미술전시를 통해 한국미술의 시대적 변화를 드러내는 일은 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한 국가의 미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꾸준히 변화·쇄신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MCA의 전시 변화의 흐름에 대한 고찰은 현재의 미술관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References

- [1] D. Poulot, *Museum and museology*, La Découverte, 2009.
- [2] R. Schaer, *L'invention des musées*, Gallimard, 1993.
- [3] S. Y. Lee, “Analysis on the Trend and Present Condition of the Blockbuster Gallery Exhibition-Focused on the Exhibitions Taking Place from 2007 to 2009”, *Journal Korea Society of Visual Design Forum*, vol. 30, February 2011, pp. 57-70, doi: 10.21326/ksdt.2011..30.005
- [4] D. I. Kim, H. S. Park, “Diversity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rtist and Media Diversity in the Exhibitions and the Collection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 36, no. 2, August 2022, pp. 33-60, doi: 10.16937/jcp.2022.36.2.33.
- [5] K. S. Yun, “Study on the Effect of the Globalism, as Measured by Changes in Artist Nationality, of the Korea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s (MMCA) Acquisitions from 1971 to 2020”, *Korean association of arts management*, vol. 61, May 2022, pp. 41-77, doi: 10.52564/JAMP.2022.61.41.
- [6] K. S. Kim, “A Rethinking of the Periodization of Contemporary Art in Korea from the Viewpoint of Contemporary Art Discourse”, *Journal of Contemporary Art Studies*, vol. 23, no. 1, June 2019, pp. 35-62, doi: 10.29330/jcas.2019.06.23.1.35.